

## 한우고기 판별용 표지유전자의 실용성 검증

최인호, 이상훈<sup>1</sup>, 장현주, 이창수, 상병찬<sup>1</sup>, 오홍록<sup>1</sup>  
 건국대학교 생화학과, <sup>1</sup>충남대학교 낙농학과, 축산학과

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는 소품종간 유전체의 구조차이에 의하여 판별될 수있다. 본 연구팀은 한우와 서양우 품종을 대상으로 서로간을 구별할 수 있는 표지 유전자를 실험실 단계이세 개발하였음을 이미 보고 하였다. 한우 판별기술이 실험실 단계에서 현장의 판별기술 동정법으로 확립되기 위하여 많은 두수(약 100두)를 대상으로 소의 유전체 분석이 실시되었다. 전국 지역별 약 700두의 한우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95% 이상이 표지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나, 국내 젃소(141두) 및 수입쇠고기(115점)에서는 95%이상이 표지 유전자가 검출되었다. 이는 개발되어진 한우판별용 표지유전자의 판별신용도가 한우 및 서양우 모두 95%이상으로서, 현장에서도 적용하여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. 한편 강화도에서 격리 사육 중인 한우 교잡우 및 칙소를 대상으로 표지 유전자의 검출유무를 조사한 바, 검출양상은 한우와 서양소의 어느 한쪽의 형태를 취하였으나, 표지유전자의 검출비율은 한우와 서양소의 중간 형태의 수치를 보였다.